

# 문화체험과 에스노그래피의 정치학: 식민지 시대 서구지역 기행문 연구

차혜영

한양대 한국언어문학과 조교수, 한국현대문학 전공  
chycap@hanyang.ac.kr

- I. 들어가며
- II. 식민지 시대 서구 여행과 기행문을 둘러싼 조건
- III. 문화체험 기행문의 양상
- IV. 문화체험 기행문의 에피스테메
- V. 나오며

## I. 들어가며

이 글은 한국에서 식민지 근대가 시작된 이래 서구지역을 여행한 이후 씌어진 기행문을 고찰하고자 하는 글이다. 최근 근대문학계의 기행문, 특히 해외 기행문 연구는 장르 중심으로 위계화된 문학 '바깥'의 심상지리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근대 지식인의 서구문화 수용 인식의 차이나 문명화의 강박, 해외를 경험한 지식인 주체의 정체성 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 나혜석 등 개별저자 및 서구 유학을 다녀온 신여성군에 대해 분석한 연구, 그리고 지리적 인식이나 세계체제 등 기행문 자체의 조건에 대한 탐구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sup>1)</sup> 기행문 연구는 근대 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식민지 시대 해외 기행문의 저자군에는 기존의 문학연구, 운동사 연구에서 거론되었던 지식인들 외에도 교육, 의료, 상공인, 종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당시 신문, 잡지 등의 근대 언론매체를 통해 다양한 외부의 심상지리를 제공하면서 근대의 표상을 주조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전의 연구에서 이런 서구여행의 심상지리를 문명화의 강박 하에 "이미 배운 것을 추체험하는 여로"로 언급한 바 있다.<sup>2)</sup> 본고에서는 이 '추체험의 여로'가 갖는 단선성을 반성하면서, 서구여행을 통해 근대주체가 형성되는 다각적인 차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점에서 서구여행기라는 글쓰기를, 실제의 여행 경험과 그것에 대해

- 1) 서구지역 기행문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김경일, 「식민지 시기 신여성의 미국체험과 문화수용」, 『한국문화연구』11; 우미영, 「신여성 최영숙론 - 여성의 삶과 재현의 거리」; 우미영, 「서양체험을 통한 신여성의 자기구성 방식」, 『여성문학연구』12; 이미정, 「근대를 향한 식민지인의 여정」, 『시학과 언어학』10(2005.12); 손유경, 「나혜석 구미만유기에 나타난 여성 산책자의 시선과 지리적 상상력」, 『민족문화사연구』36(2008); 차혜영, 「1920년대 해외 기행문을 통해 본 식민지 근대의 내면형성 경로」, 『국어국문학』137; 차혜영, 「지역간 문명의 위계와 시각적 대상의 창안」, 『현대문학의 연구』24(2004.11). 이상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지역 기행문 연구 중 대다수는 신여성의 서구체험에 머물고 있다. 연구의 시야를 거시적으로 넓히고 이론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서구인에게 새것을 보는 호기심과 모험의 심상지리가 우세했다면, 식민지인은 서구인이 썩놓고, 보편화시킨 지식의 위계를 통해 학습된 자의 시선으로 서구인이 '이미 본 것'을 '반복'하는 '식민지성'의 측면에 주목했다. 차혜영, 「지역간 문명의 위계와 시각적 대상의 창안」, 『현대문학의 연구』24(2004.11).

글쓰기(표상)화되어 만들어진 '서구', 그 표상과정 속에서 동시에 축조되는 자기상의 관점에서 다시 보고자 한다. 즉 실제의 여행 경험과 그것에 대해 글쓰기(표상)화되어 만들어진 '서구'는 다른 차원이고, 기행문은 후자의 차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행문으로 씌어진 서구'는 번역된 서구로서, 실제 체험이 아닌 문화적 '대형상화' 관계<sup>3)</sup>에 의해 만들어진, '타자-자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표상의 방식 중 기행문은 '개인의 실증적 체험을 쓰는 글쓰기'라는 조건이 만들어내는 '특정한 표상 주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특정한 표상주조의 방식을 ①공간(장소)과 주체의 관계 형식, 즉 여행 경험에서 대상 지역을 어떻게 글쓰기의 대상으로 전유하는 가하는 경험의 양상에 대한 것, ②시간, 즉 기행문 글쓰기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시간인식의 문제 ③이를 통해 드러나는 구조적 글쓰기 방식의 의미,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④기행문의 서술 주체가 한국근대의 주체상과 어떻게 조응하는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기행문은 대상지역에 대한 표상의 생산이자 동시에 그것을 전유하고 있는 자기를 구성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서구지역 기행문은 개인이 물리적, 부분적 대상 공간을 어떻게 관념적 표상으로서의 서구로 구성해내는가, 이런 공간 전유 과정에서 시간이 어떻게 관여되는가? 이렇게 서구의 구조과정에 작동하는 자기(주체)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가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식민지 시대의 기행문을 임시적으로나마 유형화해 본다면, ①1920년대 초반 유학생이나 여행객의 실제 '여로'를 중심으로 한 장편 연재 기행문(유럽을 포함하는 세계일주 형식), ②1920년대 중반 이후 신문 및 잡지 연재되는 미국중심의 '고학체험' 기행문, ③1920년대 후반 이후 특정 지역에서의 개인의 '문화체험'을 특화하는 기행문, 그리고 ④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미국, 러시아 등의 정치적 행사에 관련된 필자들의 장편 연재 기행문 등이 있다.<sup>4)</sup>

3) 사카이 나오키, 후지이 다케시 역, 『번역과 주체』(이산, 2005), 118-119쪽. 이 번역본에서 'cofiguration'을 '쌍형상화'로 번역했지만, 본고에서는 이보다는 '서로 마주봄의 도식'이라는 의미에서 '대형상화'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저서에서 그는 비서구와 서구와의 만남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근대의 상황을 문화번역이라는 관점에서 살피고 있다.

4) 미국에서의 태평양회의에 관련된 송진우, 김동성, 모스크바 공산당 대회 취재차 파견된 이관용, 김준연 등의 장기 연재 기행문이 이에 해당된다.

이 다양한 기행문들 중에서 본고는 세번째의 문화체험기를 다루고자 한다.<sup>5)</sup> 여로형 기행문이 서구의 전유를 통해 네이션이라는 집단주체를 형성해가는 경로로 볼 수 있다면, 문화체험형과 고학체험형 기행문은 근대적 개인을 형성하는 두 경로, 즉 자본주의적 소비자의 멘탈리티(문화 체험), 입신출세적 성공과 결부되는 자본주의적 에토스(고학체험)와 관련 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체험기행문을 대상으로 자본주의적 소비자의 멘탈리티가 구축되는 방식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이 글의 문제의식을 밝히는 차원에서 한국근대의 해외 기행문을 보는 몇 가지 조건(역사적, 미디어적, 글쓰기적 조건)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 문화체험형 기행문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2장의 전제와 3장의 양상을 종합해 문화체험형 기행문의 특징을 집약해보고자 한다.

## II. 식민지 시대 서구 여행과 기행문을 둘러싼 조건

우리 근대가 시작된 이래 서구지역으로의 여행과 그 보고서로서의 견문기의 등장 시점은 1880년대이다.<sup>6)</sup> 대한제국기의 서구 여행은 1883년 견미사절단 ‘보빙사’의 파견이나 1887년 초대 주미전권공사(駐美全權公使) 박정양의 미국 파견, 그리고 유길준, 서재필, 윤치호의 미국 유학, 민영환의 러시아 황제 대관식 파견(1896)과 영국 빅토리아 여왕 즉위식 파견(1897)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여행 이후 씌어진 기행문은 대부분 공적 사행록이거나 그것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은 미국 유학시에 배운 지식과 기행문이 결합된 것이고, 민영환

- 
- 5)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여로형 기행문에 대해서는, 박물관/실험실의 메타포를 통해 ①서구 전체=문명권이라는 공간감각과 세계사와 역사의 대기실이라는 시간감각으로, ②서구의 분할과 현재형 시간의 전면화를 통한 각국사로서의 시간인식의 변형의 차원에서 살펴 본 바 있다. 차혜영, 「식민지 시대 여로형 서구 기행문 연구 - 박물관·실험실 은유와 네이션 주체의 구성방식」, 『한국문화이론과비평』(2009.12) 참조. 또한 고학 체험에 대해서는 차혜영, 「식민지 시대 미국유학생의 장소표상과 주체구성 - 고학 체험기를 중심으로」, 『현대문화이론학회』(2009.12) 참조.
- 6) 이 시기 해외 기행문 연구 중 황호덕의 『한국근대형성기 문장배치와 국문담론』, 성균관대 박사논문(2002)은 대한제국기 관료들의 일본을 통한 타문화 접촉의 문제를, 일본 사행록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해명하고 있다. 서구지역에 대해서는 장규식, 「개화 지식인의 서구체험과 근대관」, 『동방학』(2005), 김윤규, 「개화기 친미 지식인이 의식과 문화」, 『문학과학언어학』(2006. 5), 김진영, 「조선왕조 사절단의 1896년 러시아 여행과 옥시덴탈리즘」, 『동방학』(2005.9) 등의 연구가 있다.

의 사행일기 『해천추범』(러시아 니콜라이 황제 대관식 사행일기, 1896), 『사구속초』(빅토리아 여왕 즉위식 사행일기, 1897), 그 사행을 함께 수행한 김득련의 『환구금초』(『환유금초』: 한시 형식의 기행문, 1897), 박정양이 남긴 『미행일기』(1887), 『미속습유』(1888) 등이 이 시기의 공적 사행에 대한 기록(복명서, 사행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대한제국기의 사행록 성격의 기행문은 조선시대의 연행가나 기행가사와는 물론, 식민지 근대 이후의 해외 기행문과도 다른 성격을 보인다.<sup>7)</sup>

대한제국기 이후 단절된 서구지역 여행과 기행문은 1920년대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중국 등지의 기행문은 1910년대에도 존재했었지만,<sup>8)</sup> 본격적인 미국 및 독일 유학생이 등장하고, 그들의 기행문을 게재하는 대중적 언론 매체와 기행문 필자(유학생을 포함한 미국, 유럽 여행자의 등장)의 대거 등장은 1920년대부터다. 여기에는 3.1운동 이후 고조된 조선인들의 교육열을 포함하여, 일본 유학을 마친 학생들이 미국, 유럽으로 재유학을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1910년대까지는 미국 유학이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고,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가 운영하는 사립학교나 해외망명을 통한 미국·유럽 유학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일제가 '해외도항금지조치'를 일본 유학생에 한해 조금씩 해제하고 선교단체에서 조선인 유학을 적극 주선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sup>9)</sup>

7) 대한제국기 서구지역 기행문은 따로 조망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기행문 중, 김득련의 『환구금초』가 한시 형식으로 기존의 유교적 세계관과 시 형식을 보이는 반면, 사행록 성격의 다른 기행문들은 사건을 단순 기록한 짧은 일지형으로서, 개인의 감상이 극도로 제한되어있다. 이 간략한 사건 기록형 여행기는, 급박하게 밀려오는 충격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방어로,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들의 신분 및 여행의 성격-공인으로서의 왕과 국가를 대리한다는 점-, 그리고 개인적 감상을 글쓰기화하는 근대적 글쓰기체계(에크리튀르) 확립여부 등에서 이 글의 대상인 식민지 시기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3.1운동 이후 시기와 계몽기의 기행문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고를 달리할 몫이라고 본다.

8) 이범윤은 『매일신보』와 『학지광』의 기사를 근거로, 우리 근대의 해외 유학이 1881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고(일본, 중국 포함), 한일합방 이후 1910년대 후반까지 일시적 침체를 맞다가, 1910년대 후반 다소 증가했다고 본다. 1910년대 후반기 이런 약간의 변화는 이른바 '실력주의'의 분위기, 즉 우승열패의 사회진화론에 입각해서 세계를 해석하고, 경쟁사회에서 요구되는 학식지려(學識智慮)와 힘(체력, 두뇌력, 자금력)을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이범윤, 「1920년대 해외유학에 관한 연구 - 동야일보 관련기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2002).

9) 박찬승, 「식민지 시기 도일 유학과 유학생의 민족운동」, 『아시아의 근대화와 대학의 역할』(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173-174쪽; 이범윤, 위의 글, 39쪽.

서구로의 여행의 증가 현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치·역사적 조건의 변모와 함께, 철도와 선박 등의 교통, 통신체계라는 물리적 미디어 조건 또한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이런 정치적, 물리적 조건 외에 시기 이후 문화정치로 인해 『개벽』, 《동아일보》 등 대중 언론매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조건 또한 주요하게 작용한다. 지식인들이 서구 여행을 통해 겪은 ‘개인적 경험’, 그것을 기술한 ‘개인적 지식’을 ‘대중적으로’ 형성·유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언론 매체가 중요한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기행문이 쓰여지고 읽히는 과정은, 여행의 경험 내용이 개인적으로 형성되는 조건(사비 유학생의 출현)과 사적으로 경험된 지식을 주관적 기명의 글쓰기로 만드는 글쓰기 관습(근대적 글쓰기의 정립), 그리고 이를 대중 미디어에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지식의 대중적 사회화(실현) 방식이 새로이 형성되는 과정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이는 ‘경험의 조건’, ‘지식 형성’, ‘지식 유포의 사회적 형식으로서의 미디어’ 차원에서 앞 시기의 대한제국기의 국가적 방식과 대비된 ‘근대적’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 시기에 타문화 체험을 통해 형성된 지식이 사회화되는 경로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지식과 그 지식의 사회화 과정에 일정한 매개(미디어)를 거친다는 것이다. 즉 타문화 체험을 통해 형성된 지식(읽)이 직접적으로 사회화(현실화, 실천화)되는 것<sup>11)</sup>이 아니라, 대중미디어를 통해 공통지식(대중표상과 여론)으로 매개(미디어화)됨으로써 계몽과 설득을 통한 주체형성, 표상의 재현을 통한 이미지 유포, 그것을 통한 대중적 욕망의 창출 등의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식민지’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근대 미디어’ 사회라는 제도적 조건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필자는 다른 지면에서, 해외여행에서 장기간의 대형선박 체류 경험을 세계체제 속의 ‘문화’, ‘문명’의 보편성을 체험하는 장으로, 그리고 철도여행 경험을 당시 조선의 경성에서 남과 북으로 이어지는 차별화된 심상지리로 접근한 바 있다. 차혜영, 「1920년대 해외기행문을 통해 본 식민지 근대의 내면형성경로」, 『국어국문학』 137(2004.9); 차혜영, 「세계체제 내 식민지 근대의 심상지리」, 『한국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2004.12) 참조.

11) 이런 직접적 실현은 일시적이지만, 대한제국기의 경우에 해당된다. 미국 보빙사 등으로 다녀온 관료들에 의해 건의되어 실현된 우편제도, 근대식 학교 교육, 「한성순보」 발간 등의 근대적 제도개혁이 이에 해당된다.

사실상 근대의 언론매체로서의 미디어는 어떤 글이 가치중립적으로 실리는 도구라는 차원을 넘어서, 특정의 지식의 형태, 지식의 내용, 그리고 유포 방식을 통해 집단 표상을 주조하고 틀 짓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율성'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제도적 영역을 할당받은 근대 '문학제도' 속의 시, 소설 장르와 달리,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에 있는 기행문(경험적 글쓰기)의 경우는 미디어가 글쓰기를 주조하는 방향과 경험을 호출하고 배치하는 방향을 통해 집단적 대중적 지(知)를 주조하는 방향으로서의 '지식 - 권력으로서의 에피스테메'에 더욱 직접적으로 구속받는다<sup>12)</sup> 이렇게 볼 때, 근대의 다른 글쓰기(기사, 인터뷰, 수필)도 마찬가지로지만 경험적 지식을 호출하고 기획하고 유통시키는 미디어의 관점이 기행문 연구에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론 매체로서의 잡지나 신문, 그리고 철도와 선박, 기행문을 보내고 게재하는 통신망<sup>13)</sup> 등 근대 미디어와 그것을 포함하는 근대적 교통 통신 체계가 근대 기행문을 조건 짓는 외적인 차원에서의 미디어적 조건이라면, 이와 다른 차원에서 기행문이라는 일종의 지식, 글쓰기를 내적으로 조건 짓는 또 하나의 차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행문이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고 생산되는 집단적 표상이라는 점 이외에, 근대 기행문은 '경험 - 글쓰기'라는 또 다른 조건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행문을 '물리적인 지역(공간)을, 기명의 특정 개인이 실제로 체험한 것을 기초로 쓴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기행문이라는 명칭 자체가 '경험'과 '글쓰기'라는 내용과 형식 및 그것의 조건(실증적 사실성)을 동시에 전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을 쓴다'는 기행문의 글쓰기 조건에서 본다면 경험이 먼저 있고, 그것을 쓰는 행위가 나중에 있다는 전제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는 근대적 리얼리티의 가상이 만들어낸

12) 물론 이런 근대적 지식의 에피스테메에서 문학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상의 이데올로기의 형태로나마 명시화된 '자율성'의 가상은, 미디어의 편집체제에서, '문예란', '창작란'의 독립, 기명의 작가의 명시 등 다양한 가시적 장치를 동반한다. 그러나 기행문, 체험기사류 등의 경우, '-학인', '기자' 등으로 저자가 명시되지 않기도 하고, 동일한 경험이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하는 등, 이런 자율성, 독창성의 영역을 할당받지 못하고 있다.

13) 기행문 필자들은 여행에서 돌아와 쓰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기행문들은 '재독일', '재콜롬비아', '재뉴욕' 등 자신이 체류 중인 지역이나 학교에서 원고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우라키』(북미유학생회 기관지)를 통신판매하는 광고가 국내 잡지 『별건곤』 등에 실리기도 한다.

인습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사실상, 씌어지지(언어화되지) 않은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당대 독자에게, 그리고 당대 공통의 지(知)의 차원에서 볼 때, 해외 경험은 ‘글쓰기화되고, 미디어화된 표상으로서의 지식’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근대문학이 ‘경험(사실)에 부여한 객관적 사실성과 절대적 주관성은 모순적면서도 상보적으로 근대적 글쓰기를 규정짓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기행문 역시 경험적 사실성과 주관적 절대성을 양 축으로 하는 근대적 글쓰기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행문은 물리적 이동의 경험과 이것의 움직일 수없는 실증성 때문에 자서전<sup>14)</sup> 보다 근본적으로 주관성과 객관성을 예각화하면서 ‘사실성’이라는 근대적 지식-권력관계를 자명하게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이 경험적 지식에 입각한 글쓰기라는 근대의 특권적 양식, 즉 경험에 부여하는 배타적 직접성과 고백하는(글쓰는) 자에 대한 특권적 신뢰는 근대가 부여하는 일종의 허구 혹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아렌트는 이야기의 기능을 현실의 구성이라는 칸트적 개념으로 파악한 바 있다. 즉 ‘이야기’는 직접적인 체험을 수용 가능한 또는 이해 가능한 경험으로 조직화한다는 의미에서 ‘경험의 가능성의 조건’, 즉 칸트의 용어법에서 말하는 ‘초월론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5)</sup> 미셸 푸코는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초월적 인식들(에피스테메)조차 역사에 따라,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의 역학에 의해 구조화된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본다면 ‘경험적 글쓰기로서의 기행문’이 문제되는 지점은 실제로 ‘개인이 경험한 여행이라는 사실과 그것에 대한 ‘글쓰기(이야기, 언어화), 그리고 이 개인적 지식이 미디어의 매개를 포함하는 더 큰 차원의 ‘공통적, 집단적 멘탈리티 속에 자리잡는 차원’이 중층적으로 관련되는 지점일 것이다.

위와 같이 근대기행문이 놓인 역사적·정치적 조건의 변화, 교통·

14) 필립 르죈은 근대의 자서전 쓰기가 갖는 주관성과 객관성의 모순적 요구를 고찰한 바 있다. 필립 르죈, 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문학과지성사, 1998).

15) “리얼리티는 사실과 사건의 총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다. 리얼리티는 절대로 확정할 수 없다... 사실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 작가이기도한 이상, 사실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현실(리얼리티)과의 화해를 만들어낸다.” 한나 아렌트, 『between past and future』(Penguin Books, 1977); 노에 게이치, 『이야기의 철학』(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0), 293쪽 재인용.



통신·언론 매체 등 외부적인 미디어적 조건, 그리고 경험적 글쓰기를 자명화하는 근대 에크리튀르적 조건 속에서, 식민지 시대 해외기행문은 개인적 진정성과 경험적 사실성의 권위를 통해 해외표상의 공통적·집단적 지식을 주조해 갔다고 할 수 있다.

### III. 문화체험 기행문의 양상

#### 1. 개인적 이색체험을 쓰는 여행기

이 부류 기행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정석태의 해외 기행문 「洋行中雜觀雜感」, 「佛蘭西巴里求景, 보는 것 마다 세계진물 - 洋行中雜觀雜感 -」, 「獨逸柏林의 첫生活, 바리로부터 柏林에」(『별건곤』 1호, 2호, 5호)이다. 이것들은 독일로 유학 가는 중에 파리에서 베를린에 이르는 간단한 여정을 축으로 씌어진 기행문이다.

그런데 이 여로를 유명관광지, 국가기념물, 명승지를 예방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전공과 관심분야로 한정해 보거나, 또는 유명한 것을 보더라도 일정이 허락하는 대로 임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면서 자기 경험과 느낌을 강조하는 진술을 보인다. “무슨 고적이고, 관람에는 적어도 그에 대한 얼마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바이다. 연이나 문외한인 우리들은 귀한 보는 바의 재료는 만타하지마는 일일이 다 그 진정을 알기가 힘이 든다” 하면서 자신의 관심을 끈 분야의 방문지, 자기가 실제로 겪은 경험을 중심으로 문물제도를 기술하는 형식을 취한다. 실제로 의사인 그가 길게 기술하는 방문지는 파스퇴르 연구소이고, 그곳에 전시해 놓은 ‘메치니코프 해골’에서 강력한 인상을 받는다. 이처럼 ‘내가 겪은’ 을 강조하면서 자기 체험으로 한정된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을 기술하는 그의 유럽기행문에서는 유독 이색적인 볼거리나 체험이 자주 등장한다.

바로 바리大學 미준편으로 (Musée de Clung Sonbonne Pan-theon)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건물은, 그리 과히 크도안은 모양이나 매우 오랜 상십다. S군은 連해 우리에게 취미를 갖게 하노라고 발길을 이 박물관으로 옮기여 이방지방을 서서히 구경을 식이는데 참으로 그 취미 김흥이야 일일이 기록할 수 업섯다. 其中에서도 S군의 특별안내와 특별소개로 우리는 실로 꿈에도 상상도 못할 천하의 진물을 보았다. 都是 佛國은

이상한 것도 만흔 나라지… 소위 『貞操帶』라고 하는 여자의 정조 잠을쇠라 할 물건이 두 가지가 노하여 있는데 잠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뺨도」 혁대가티 띄를 띠우게 만들고 아래로 象牙로 된 돌기가 있서 띄는 쇠를 잠그게 되야 모조가 극히 간단하게 보인다. 설명자의 말을 들을 것 가트면…<sup>16)</sup>

위의 인용문은 메치니코프 해골에 이어 길게 기술하는 파리 박물관에서 본 ‘정조대’이다. 박물관에서 문명의 위용을 사랑하는 다양한 예술품들이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문외한’이라고 내세우면서, 그 문화적 위용물을 언급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자신의 기존의 상식을 깨트리 는 충격적인 체험을 길게 서술한다. 이처럼 개별적인 체험을 선택해 기술하는 글쓰기 속에서 유럽이라는 문명에 대해 주눅들지 않고 기술하는 거리감과 안정적 시선이 전체되어있는 것이다. 이는 계몽기의 유길준의 기행문이 지식정보 위주의 기행문, 박정양, 민영환 등의 기행문이 보이는 간단한 일지형식의 단순기록형 기행문에서는 보이지 않던 면모이다. 계몽기의 기행문이 서구의 충격 앞에서 감상의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라면, 3.1운동 이후 이 시기의 기행문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기행문이 나오는데, 이중 개인적 문화체험을 중심으로 서술한 이 부류의 기행문은 양적으로는 소수이나 대상을 전유하는 태도에서 이와 같은 색다른 지점을 보여준다.

엿지 엿지 지나엿든지 파리행 열차를 타러 정차장으로 나갔다… 막 나가닛가 떠나는 차도 있고 오는 차도 있는 모양이기로 문져 눈치 빠른 드시 기차 시간표의 계시관을 쳐다보니 일이등 파리 급행열차가 23시 40분이라 써여있다. 이를 처음 보는 우리로서는 어이가 업시 서서 서로 얼굴만 쳐다 보았다. 우리는 소학교 이후로 23시란 말을 듣지도 못한 연고이다. 얼핏 생각 나기는 서양 시간은 더 만히 있는 줄로 추측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다른 것이 안이다. 하로를 24시로 논아서 오전 오후를 쓰지 안코서 23시 40분이라 한 것이니 오후 11시 40분이란 걸로 해결이 되고 보니 공연히 허둥지둥 하얏든 것이 도로혀 우스웁다.

위의 인용문은 오전과 오후 시간표를 혼돈한 경험이다. 기차여행이 주는 다양한 문명체험, 그리고 특히 유럽 대륙 내부를 잇는 철도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을 이동했는데도, 거기서 느끼는 풍광과 건축물에 대한 문화적 감상, 발전상 대한 놀라움과 위축감<sup>17)</sup> 은 그다지 서술되지

16) 정석태, 「佛蘭西巴里求景, 보는 것 마다 세계진물 - 洋行中雜觀雜感 -」, 『별건곤』 2호, (1926. 12).

않는다. 다만 시간표 혼돈을 통해 겪은 사적 체험이 기술되는 것이다. 또한 이 체험의 내용상 스스로 인정하듯 ‘시골사람 경성에 온 격으로’와 같이 창피한 경험이지만, 여기에는 창피함이 없는 가벼운 태도가 깔려있다.<sup>18)</sup> 이외에도 메트로라는 지하철 탄 경험, “오랫동안 船中에서도 困難을 당치 않은 바는 아니었으나 상륙 후 부터는 더욱 困難을 바든 것은 양인의 변소에서 안저 뒤를 보는 일 … 엇절수 업시 실례이지만 조선식으로 보게되니 마음대로 지나든 내 故國이 第一인 듯 심혔다”라는 좌식 화장실 경험이라든지, 하숙집을 정하면서 주인에게 무시당할 것이 싫어 거짓말을 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기행문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언어소통의 곤란함을 솔직하게 쓰기도 한다.

이런 태도는 박승철이나 나혜석의 여로형 기행문에서 보이는 감탄일변도의 위압감과 주눅들림과는 상반되는 태도이다. 즉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추체험하는 문명의 위압감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 스스로를 ‘문외한’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쿨한’ 자기규정은 새것을 대하는 식민지 근대인의 태도에서 이전에 없던, 매우 새로운 태도인 것이다. 이 문외한이라는 자기규정에 내재한 가벼우면서도 당당한 태도는 개별주체가 문명이나 문화 전체로 상상되고 지시되는 ‘귀속 공동체(네이션)’로부터 심리적으로 벗어나 있기에 가능한 태도이다. 즉 이 글은 대상(유럽, 파리)을 연속된 질서로서의 문화적 구성체(이는 여로 기행문의 대표적 기술방식이다)로 표상하지 않고, 대상(지역)을 하나의 점 - 화장실, 메트로, 박물관 속의 정조대, 메치니코프 해골 - 으로 선택하고, 그 점들이 서로 간에 인과적 질서나 연쇄를 이루지 않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매우 잡다하고 무질서해 보이기도 한다.<sup>19)</sup>

17) 이런 감정들은 여로형 기행문에 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후 서술에서 군데군데 여로형 및 고향체험형과 비교하며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비교 대상인 두 부류의 텍스트 본문이 제공되지 않는 점은 독자의 양해를 바란다.

18) 이광수가 「해삼위로서」에서 보인 흑독한 열등감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 상해를 떠나는 날 새로 지은 양복에 새로 산 구두를 신고 나서니 저도 제법 양신사가 된 양야야 마음이 호뭇하더이다. 평생 못타보던 인력거를 병풍가터 몰아 영대로 장판가튼 길로 달릴 때에 맞은 시골뜨기에게는 어지간한 호강이더이다. 그러나 로상에서 眞字 양인을 만나매 지금껏 가지엇든 ‘프라이드’가 어느덧 슬어지고 등골에 찬 땀이 흐르어 부지불식간에 고개를 숙이엇나이다.” 「해삼위로서 (기일)」, 『청춘』 6호(1915.3), 79쪽.

19) 이런 방식은 대중잡지의 예로, 그로, 엽기의 관점에서 소비되고 향유되었다는 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별건곤』 『삼천리』는 대표적인 대중잡지였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채석진과 김수진은 『별건곤』 잡지가 갖는 이런 통속적, 취미의 기획을

그러나 이런 겉보기의 잡다함이나 무질서한 이색 취미는 실은 내부에 정반대의 질서가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체험의 대상인 지역, 공간을 전유하는 방식에서의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 해외 기행문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로형 기행문의 경우, 파리의 에펠탑이라든가, 박물관, 전승기념관, 라인강이나 로렐라이 언덕 등 유명지는 단지 개인이 겪은 하나의 경험 대상(점)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야기를 갖고 있고(의미의 은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역(국민국가, 문화도시)을 대표(제유)하는 것이 된다. 그 표층의 점과 심층의 의미가 인과적 질서와 선적인 연속성의 질서 속에 놓여있고, 이런 상상력이 바로 네이션을 성립시키는 기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박물관이나 전승기념관의 개인적 경험은 그 대상이 함의하는 전쟁, 국가 건설, 영웅 기념 등의 심층 이야기와 함께 전유되어 의미화되는 것이다. 이때 표층의 개별적 경험대상을 심층의 문화적 의미와 연결시키는 네이션이라는 상상력은 대상의 차원에 속하면서, 그 대상을 경험해 자기화하고, 표현, 기술하는(- 전유하는-) 주체의 차원에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재하는 것을 상상하는 네이션이라는 귀속공동체의 상은 이처럼 여로형의 경험표출 기행문에서 그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정석태의 기행문은 대상을 단편화된 '점'으로 경험하고, 그 단편화된 대상을 확장된 자기(귀속공동체와 동일화된 주체)로 전유하지 않는, 개별적 감각과 경험을 기술하는 개체로서의 대상 전유태도는 이런 질서와는 다른 차원에 놓인다. 단편화된 대상들은 심층의 이야기로 의미화(은유, 제유) 되는 것이 아니라, 표층의 대상들 사이에 환유적으로 확산될 뿐이다. 점과 점, 하나의 경험대상과 다른 경험대상(지하철과 정조대, 화장실과 해골)은 인과성이나, 그것이 만들어 내는 전체의 상(국민국가 이야기)는 전제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주체가

젠더적 관점, 제국의 기획이라는 관점에서 심도 있게 접근한 바 있다. 김수진, 「취미기사와 신여성 - 서사양식과 주체위치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5집(2007); 채석진, 「제국의 감각 - 예로, 그로, 넌센스」, 『페미니즘 연구』 5(2005).

20) 가라타니 고진은 『네이션과 미학』을 통해 네이션이라는 상상의 구성물이 창안되는 시점이 서구 철학사에서 감정과 오성을 매개하는 상상력에 대한 논의가 만들어지던 시점과 같다고 말한다. 즉 감각과 이성을 매개하는 인식론 상의 '상상력'과 네이션이라는 부재하는 공동체의 상을 상상하는 동학이 근대 초기 함께 운동된다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네이션과 미학』, (그린b, 2009) 참조.

귀속공동체의 대리인, 네이션의 대표로서 문화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석태의 앞서의 인용문에서 보이는 '시간' 착각은, 근대적 시계시간으로 균등분할하는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와의 충격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정석태에게서 어떤 시간적 뒤처짐이나 그로 인한 열등감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신이 '온 세계'(귀속공동체)로부터 자신(개인)을 심리적으로 분리하는 글쓰기 태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글들은 요컨대, '정조대', 서구식 화장실, 지하철이라는 체험대상을 세계 문화 예술의 중심지라는 파리의 문화적 위상과 비교·의미화하기 보다, '이상한 것들의 집합체' 속에서 의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잡다하고 이상한 것들이 얽혀있는 서구는, 더 이상 '문명'의 이상적 모델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개별화되고 분할된 대상으로 전유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구라는 관념을 개별화된 지역이나 물리적 분할 대상으로 전유하게 하는, 혹은 그런 전유를 통해 구성되는 주체는 무엇이고, 그 주체의 정당성은 어디에 놓이는가? 그것은 '내가 실제로 겪었다'는 경험하는 개별자에 대한 주체의 자기규정이다. 이런 경험을 강조하는 기행문이 이 문화체험형 기행문의 공통적 특징이다. 즉 그토록 유명한 것을 이제야 본다는 배움의 확인이 아니라(여로형-추체험), 듣도 보도 못하던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는 것, 믿을 수 없는데, 사실이라는 것이다. '믿을 수 없음'과 '경험적 사실'이라는 두 개의 이율배반적 항을 논리적으로 신뢰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체, 즉 철저히 개별화된 주체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놓여 있는 것이다. 문화체험형 기행문의 경험 선택, 대상 전유 방식은 그 전유의 주체를 '개인'으로 매우 분명하고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2. 서구의 일상 문화와 축제 체험

이 부류 기행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정섭, 나혜석, 김련금 등의 기행문을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서구 유럽의 세시풍속, 축제 등을 체험한 기행문이다.

곳의 바리 市街에는 商店에 直驅하는 紳士風 運轉手들

예술의 꽃 가운데 잠긴 바리. 유행의 최첨단을 걷는 바리. 교통소음에 신경질 된 바리. 이러한 바리에도 1년 1차는 변화에서 적막으로 급템포의 전변을 보게 되나니 그날은 곳 勞働祭日이다. 택시라는 택시 빠스라는 빠스 電車 馬車할 것 업서 그냥 일제히 『스탑』하고 만다.<sup>21)</sup>

이와 같이 시작되는 이정섭의 기행문은, 파리의 유명관광지를 둘러본 결과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메이데이 행사를 생생하게 묘사, 기술하고 있다. 택시, 버스들이 일제히 스탑하는 광경, 시위대와 군중과의 밀고 당기는 싸움, 그 혼란스러운 시위대열 속에서 키스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경이롭게 묘사하면서 한바탕의 열정과 흥분의 도가니 같은 오월제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김련금(파리대학)의 「내가본 파리제」 역시 비슷하다.

파리가 원래 꿈의 도시요 로-맨스의 도시지만 그 중에도 일년에 한 번씩 잇은 이 파리제야말로 꿈속에도 꿈의 도시요 그림속에도 그림의 도시요 꽃속에도 꽃의 도시라하리만치 이하로는 온-파리천지 수백만 남녀는 모다 젊어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유쾌하게, 유쾌하게 놀더이다……

나는 이날 「코루벨」과 함께 학교 귀속사를 나와서 「만몬돌」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에는 고무풍선과 조히로 만든 여러 가지 꽃들이 칠월바람에 운치 조케 하늘공중 높히 날고 잇었습니다. … 그 아래로는 아름답게 새옷을 작만하여 입은 「파리잔」색시들과 코가 등실하고 이마가 시연스럽게 활활 비더 오른 불란서 청년이 서로 역개를 걸고 우스면서 지나갑니다.

「구르마」우에는 꽃을 가득 실은 꽃과는 각씨들이 각처에 서서 잇고 모통이모통이에는 끼-타, 만도링 켜는 청년도 잇고 무대(舞台)를 만들어 노코 음악을 연주하는 곳도 잇더이다.

엇지했든 이 거리로 발을 한 거름만 드러노키만 하면 사람은 몽혼을 당한드시 무에라 말할 수 업는 유쾌한 기분에 잠기어 지더이다.<sup>22)</sup>

이 축제는 프랑스 혁명 이후 1880년의 연맹제, 1889년 대혁명 100주년 축제 등 프랑스 제3공화정이 만들어 의례화한 축제 중의 하나이다. 이 축제는 일상성 속에서 공화정의 정치적 열광을 조직하는 열정과 흥분의 의례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그러나 이런 국가적 의례가 갖는 정치적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히 언급만 하고, 밀줄 친 바와

21) 이정섭, 「불란서, 파리의 5월1일 행진」, 『삼천리』5(1930).

22) 김련금(파리대학), 「내가 본 파리제」, 『삼천리』(1934.9).

23) 김중엽, 『연대와 열광 - 에밀 뒤르켐의 현대성 비판 연구』(창작과비평사, 1998), 290-299쪽 참조.

같이 축제의 ‘현재’, ‘현장’을 묘사하고, 그 묘사하는 흥분과 열정에 매혹되는 상태를 보여준다. 기숙사를 나와 거리로 나가, 군중 속에 뒤섞이면서 맛보는 화려한 축제가 쓰는 주체, 읽는 독자에게 ‘묘사’를 통해 감각적으로 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탈과 열정과 흥분의 분위기를 매력적으로 발산하는 파리라는 지역은 문명, 국가, 인문지리적 위계를 탈피해, 경험주체의 눈 앞에 그리고 그 묘사적 형상을 통해 읽는 독자의 눈앞에 감각적으로 현전하는 매력적인 장소(대상)로 떠오르는 것이다.

나혜석의 기행문중 일부는 이런 예를 더 잘 보여준다. 나혜석의 또 다른 기행문 부류인 여로형<sup>24)</sup>과 달리, 「베를린의 그 새벽 - 이역의 신년 새벽」(『신가정』 1933.1), 「파리의 어머니날」(『신가정』 1933.2), 「밤거리의 축하식 - 외국의 정월」(『중앙』, 1934.3), 「구미시찰기」(《동아일보》 1930. 43.3-4.10)등은 유럽에서 겪은 특별한 세모 풍습, 즉 연말을 보내면서 길거리에서 키스하는 자유의 체험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유럽각국에서 설날 그믐날 밤이 참 찬란합니다. 일년 중 마지막 가는 날이라 하여 크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 모두 길가로 나가서 춤추는 집에서 춤추는 자, 먹는 자, 이상한 모자와 의복으로 차리고 길거리에 나서서 술주정하는 남자, 허리가 부러질 듯이 깔깔 웃는 여자들이며,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며(이날 밤은 경관의 임의가 없다) 입맞추려면 여자는 꼬챙이로 찌르는 소리를 하며쫓겨 달아나는 광경, 대혼잡을 이룹니다<sup>25)</sup>

설날 그믐날 밤입니다. 나 있던 집주인 부인은 맥주를 사가지고 들어오더니 … 나는 S군을 줄라 중앙시가로 구경을 나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발에는 색종이가 펍펍 걸려 걸을 수가 없고 사람이 너무나 뻑뻑하여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취한사람 고깔 쓴 사람, 팽가리 두드리는 사람, 북치는 사람, 이리 닥치고, 저리 닥쳐 수라장을

24) 나혜석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20년대 후반 장기간에 걸쳐 세계여행을 했고, 이를 대상으로 1930년대에 여러 편의 기행문을 쓴 바 있다. 『삼천리』에 연재된 ‘여로형 기행문 시리즈’ 「구미여행기」는 연재될 때마다 「소비에트러시아 행」, 「CCCP」, 「꽃의 파리행」, 「베를린에서 런던까지」 등의 소재목들로 장기 연재된 여로형 기행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기행문은 주로 공간, 지역, 대상(미술품)에 대한 간략한 일지 같은 나열형식을 취한다. 거기에서 개인적 감상은 주로 ‘홀륭하였나이다’, ‘보았다’로 압축되는데, 사실경험을 기록하지만, 그 경험을 해석하고 자기화하는 감상은 거의 없는 편이다. 이는 나혜석의 기행문이 여로형이면서도 스스로를 귀속공동체와 동일화하지 않은 개체라는 차원과 여로의 시·공간 연쇄가 갖는 이데올로기 간의 불일치의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본문에서 언급한 개별 기행문은 서구 체험 중 특유의 경험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수필에 가까운 기행문들이다. 이 두 부류는 매우 다른 심상지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그를 달리하여 살필 몫이다.

25) 나혜석, 이상경 편, 「구미시찰기」, 『나혜석전집』재인용(태학사, 2000), 303쪽.

이루었습니다 ... 이날은 어떤 남자든지 어떤 여자에게나 키스할 특권이 있다합니다. 그리하여 쫓아가는 남자, 쫓겨가는 여자, 이리 툭 튀어나오고, 저리 툭 튀어납니다. 나는 같이 가던 S군에게

“어떻소 여보 부럽지 않소? 내 특허할테니 당신도 한번 실행해 보구려.”

“해볼까?”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어떤 여자 하나를 쫓아갑니다.<sup>26)</sup>

나혜석의 경우 『삼천리』에 연재한 여로형 장편 기행문에서는, 미술관을 중심으로 본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적은 일지형의 기록이었지만, 이 축제체험을 기술한 개별 기행문에서는 축제에서 맛본 자유와 일탈, 흥분의 느낌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 이 글들 속에는 세모를 맞는 사람들의 흥분하는 모습이 상세히 묘사된다. 모자, 의복, 색종이로 어우러진 거리 풍경, 술 취한 사람, 흥성거리는 분위기, 찌르는 듯한 웃음소리, 아무 남자나 여자가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일탈이 공식적으로 허락되는 흥분, 이런 것들이 묘사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의 기쁨과 설렘이 전달되고 있다. 나혜석은 이 베를린에서의 세모 체험에 대한 반복적 글쓰기 속에서 흥분과 일탈의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또한 독자들 역시 그 짜릿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나혜석, 김련금, 이정섭의 기행문이 서구의 일상문화 속에서 존재하는 의례로서의 축제를 경험한 것을 기록한 기행문이고 이것들이 앞서 언급한대로, 현재 경험에 집중하는 감정적, 감각적 경험주체, 그 경험을 묘사로 전달하는 방식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처럼 축제, 시장, 습속과 같은 일상문화의 경험이나 장면을 ‘묘사’하는 글쓰기 방식은 서구체험을 쓰는 과정에서의 ‘시간’ 감각 - 현재를 전면화하는 태도 - 와 상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상에 대한 묘사의 방식은, 대상 체험을 글로 쓰는 과정에서 글쓰는 개인의 주체구성(작가), 독자가 읽는 과정에서 현재성을 눈에 보이듯이 소비하는 ‘향유’의 독서방식을 통해 잠재적 개인 주체구성(독자)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여로형 기행문이 유럽 및 서구가 가진 발전의 위용에 짓눌린다는 것, 문명개화의 당위성 앞에서 식민지 지식인이 마주친 서구의 문명의 발전상에 무력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이 위압감을 느끼는 서구 발전의 위용은 결국 서구가

26) 나혜석, 『베를린의 그 새벽』, 위의 책, 349쪽.



거쳐 온 시간의 무게와 자기가 귀속될 공동체(네이션이라는 구상)가 가진 시간의 무게와의 경쟁 때문인 것이다. 반면 이 문화체험형에서는 서술에서 시간인식이 현재를 중심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현재의 경험이 정석대의 경우와 같은 이색체험인 경우도 있고, 여기서 언급한 김련금이나 나혜석 같이 서구의 축제문화를 향유하는 태도, 그리고 도유호<sup>27)</sup>처럼 독일 생활에서 느낀 일상의 풍속인 경우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현재의 대상에 집중하는 글쓰기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서구를 지금 현재, 내가 겪은 것으로 전유하는 과정에서 서구는 옹거나 홀륭하거나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어떤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서구를 공간적으로 분할하여 체험된 대상만을 선택하고, 묘사적 글쓰기를 통해 현재적으로 전유하는 이런 태도는 사실상 대상을 미적으로 전유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대상을 바라보는 미적인 태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어떤 사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의 유용성과 분리해서 그 자체로 관조하는 것이다.<sup>28)</sup> 이런 미적 대상전유 태도는 다음에서 살펴볼 에스노그래피적 서구체험기에 더 농후하게 드러난다.

### 3. 에스노그래피적 타자 체험

개인의 이색체험이나 축제나 의례와 같은 일상문화의 체험과 달리, 서구 지역 중에서 '비문명'의 특정 지역을 체험하고 기술하는 에스노그래피로서의 기행문이 등장하는 것은 1930년대 이후이다.

구한말 개화기 무렵에 조선을 찾은 서양인들이 조선에 대해 다양한 에스노그래피적 기행문을 남긴 바 있다. 이들의 기행문에는 대부분

27) 도유호는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스트리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류학자로서, 해방기에 월북 후에는 단군기원설과 관련해 김일성 주체사상과 대립된 견해를 보인 후 생물연대가 불분명하다. 『동광』에 독일기행문을 서간문형식으로 게재했고, 동아일보에 장편 연재한 바 있다. 『동광』 소재 기행문, 『독일유학일기』에서 그는 독일의 시골마을에서 생활한 경험을 서정적이고 담담하게 쓰고 있다.

28) 대상(지역, 공간, 문화)을 유용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는, 같은 체험기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고학체험기, 여로형 기행문중 이순탁과 같은 개발주의적 태도에 농후하게 나타나는 태도이다. 여로형 기행문에 대해서는 차혜영, 「식민지 시대 여로형 서구 기행문 연구 - '박물관·실험실' 은유와 네이션 주체의 구성방식」, 『한국문화이론과비평』(2009.12), 고학체험에 대해서는 차혜영, 「식민지 시대 미국유학생의 장소표상과 주체구성 - 고학 체험기를 중심으로」, 『현대문화이론학회』(2009.12) 참조.

이상한 모자(갓)를 쓰고, 긴 담뱃대를 물고, 요강을 옆에 끼고 사는 더럽고 비위생적인 조선인들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순박하고 친근하며 친절할 아이 같은 심성을 가진 이들로 묘사되는 것이 상당수이다.<sup>29)</sup>

이처럼 근대인에 의해 타자로 처리된 조선인들이, ‘사적인 체험’, ‘내가 직접 보고 겪은’을 내세우며, 세계의 이색 지역을 겪어보고 쓴 여행기에, 이런 서구인과 같은 에스노그래피적인 시각을 갖는 타자 서술이 등장하는 것이다. 특히 문명의 위용을 자랑하는 유럽지역(베를린)을 ‘사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해가는 여행기 중에 집시촌을 경험한 백림학인의 「표박의 시민, “집시”의 연애와 생활, 3일간을 그들과 함께 지나든 이야기」(『삼천리』 1931.1)은 이점에서 주목된다.

나는 전보담 더 호기심에 끝내서 발자취 소리를 죽여가면서 그 수풀 사이 불빛 있는 곳으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장작 등으로 불을 피워 노코 그 주위에 때가 몹시 무든 이불을 쓰고 누운 어린애들-담배를 피우면서 편물을 짜고 잇는 늙은 녀인 카-트(화토)를 가지고 노는 어린 계집애들. 이러한 여러 가지 정경이 눈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주까지를 여행하는 중에 집씨-의 무리를 만나게 된 때가 한 두 번이 안이었지만 원시적 생활을 보는 것 갖춘 듯감을 가지게 되었습은 그날밤뿐이었습니다.<sup>30)</sup>

이 글에서 필자는 베를린 여관에서 우연히 집시촌에 가게 된 이야기, 춤추고 노래하는 집시들이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거지라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집시들의 춤과 노래는 이 여행체험의 주체에게 “초가을의 기는 실바람, 몽롱하게 빛최이는 달빛-어느것이나 바요링의 멜노디와 함께 몹시도 나의 맘을 메란코리하게 만드려 주엇”고, 그들과 천막에서 밤을 새니 “이가 무슨 썸인지 벼룩인지 빈대인지 하여간 원뎀에 두두럭이가 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의 내면생활을 자세히 알아볼려는 호기심에서 하로밤을” 지냈다고 밝힌다. 세세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29) 구한말 외국인인 조선을 여행하고 쓴 기행문은 집문당 출판사에 나온 험버트, 메켄지, 알렌, 그리피스, 오페르트, 비숍, 뮐렌도르프 등의 ‘한말 외국인 기록’ 시리즈를 참고할 수 있다. 이외에, 백성현·이한우, 『파란 눈에 비친 하얀 조선』(새날, 2006); 이지은, 『왜곡된 한국, 외로운 한국-300년 동안 유럽이 본 한국-』(책세상, 2006) 참조.

30) 백림학인의, 「표박의 시민, “집시”의 연애와 생활, 3일간을 그들과 함께 지나든 이야기」, 『삼천리』(1931.12), 76쪽.

어느틈에 날이 밝았습니다. 어린애들이 제일 먼저 이라나서 내스물(川) 잇는 곳으로 달너가서 전신을 씻습니다. 집씨 - 의 아해들은 열두세살 될 때까지 아모리 추운 겨울이라도 냇가에 가서 찬물을 끼여 언는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겨울에 훗옷을 입고도 감기들지 안는다고 합니다. 나도 어린애들을 따라서 세수하러 나갈여고 하니 열칠팔세 되는 계집애가 「냇가에까지 가실 필요가 업습니다. 데가 화장수를 드릴테니 이것으로 씨즈십시오.」 하고는 뻘 - 루병을 들면서 손을 내밀어서 밧으라고 하기에 식히는대로 밧어서 얼굴에 끼언즈려고 하니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 갓했습니다. 무엇이나고 무러보앗드니 어린 계집애들의 소변이라고 합니다. 오줌으로 고양이 세수를 하고 나니 그분이 조치 못했지만 도라올여고 할제 또 그들은 아침을 먹고 가리는 것이였습니다.

아침이라고 빵하고 도야지고기를 소곰에 자반한 것을 가운데 노코 그 주위에 쪽 둘러 안저서 제각기 깎안 손으로 하나씩 집어먹습니다. 나는 엇절줄 모르고 안저 잇노라니<sup>31)</sup>

이 기행문은 집시들의 유래나 국가, 문화에 대한 인문지리적 정보도 없고, 그들은 어느 나라의 국가적 대표문화도 아니며, 예술가도 아니다. 그들은 밑줄 친 바와 같이 더럽고, 비위생적이며 오줌으로 세수를 하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는 예술적 감성이 풍부하고, 이방인에게 친절하며 천성이 순박한 사람들이다.

이런 모습은 글 쓰는 주체의 판단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대상을 담담하게 본대로 기술하는 묘사를 통해 드러난다. 그 담담한 묘사 속에 집시들의 순박함과 이질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낯선 체험을 스스로 겪었다는 사실성을 내세우며 이토록 자세히 묘사하는 이야기의 내적 동력은 호기심, 무사심한 관조, 낮은 문화를 포용하겠다는 근대 부르주아의 세련됨이다. 동정하지만, 경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야만과 무지에 대해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세련된 관조의 태도, 이는 대상에 대한 감각적 끌림(매혹)과 동시에 그 대상에 대해 갖는 (관조, 재현의)거리로 특징화되는 근대 특유의 미적인 대상전유 방식이다. 또한 이는 서양인들이 조선이나 동양, 아프리카의 순박한 야만인을 묘사하는 종족지(에스노그라피적)재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베를린 근교, 유럽의 한가운데서 목격하고, 3일 밤낮을 체험했다는 이 기록은, 유럽의 한가운데 발견한 이색문화에 더 이상 주눅들지 않는, 재현의 거리를 획득한 자의 안정적

31) 앞의 책, 76-77쪽.

거리 감각이 배후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화체험형 기행문들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사진과 함께 게재된다는 점이다. 앞서 김련금의 파리 오월제나 이 집시촌 체험기는 모두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사진은 묘사적 글쓰기, 현재적 체험 묘사와 함께 상보적으로 병치되면서 대상을 시각적 형상으로 향유되도록 대상화하는 핵심 방식이다. 낯설고 이상한 체험기와 함께 게재된 사진은 '믿을 수 없음'과 '사실'임을 함께 지시하면서, 대상을 선정적 호기심으로 소비하도록 방향짓는 것이다. '살아있는 경험', '생생함', '사실'임을 자체를 향한 대중적 호기심과 갈증, 그것을 눈에 보이는 듯이 묘사하는 대상 묘사방식, 그리고 사진이라는 시각적 재현물은 하나로 연동되고 있는 것이다.<sup>32)</sup>

앞서 이 두 개의 이율배반적 항 ('믿을 수 없음'과 '사실'임을) 연결시키는 논리적 근거가 '개인으로서의 주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 개인은 이율배반적 재현물('믿을 수 없음'과 '사실'임을) 선정적 호기심으로 소비하고, 탐닉하는 개인이다. 즉 귀속공동체 네이션의 대표가 아닌, 개체로서 경험을 풍족하게 소비하고 향유하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부류의 기행문이 여로형이나 고향체험기에 비교했을 때, 양적으로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대중잡지에 실린 이 기행문들이 새로 부상하는 근대적 주체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물건을 소비하듯 대상(짜릿한 경험, 낯설고 이질적인 타자)을 반복적으로 소비하고, 탐닉하는 태도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낯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조건이 조성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에스노그래피적 타문화 체험의 예는 남미의 리오데자네이로 항구를 여행한 기행문, 홍운봉의 「각국의 엽기행, 남미 리오항」(『삼천리』 1935.1)을 들 수 있다.<sup>33)</sup>

32) 시각적 재현에의 욕망과 그 재현물을 소비하는 욕망으로 근대도시와 대중언론의 형성을 고찰한 것으로, 바네사 슈와르츠, 노명우-박성일 역, 『구경꾼의 탄생-세기말 파리, 시각문화의 폭발』(마티, 2006) 참조.

33) 이런 방식의 에스노그래피적 타문화 전유 양상은 일찍부터 동남아시아가 그 대상이기도 했다. 아시아 지역이라 이 글의 대상은 아니지만, 서구지역을 여행할 때 중간 기착지로서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피낭, 베트남 등은 20년대부터 자주 이런 시선에 노출되어 있고, 이 시기 역시 예외가 아니다.

朝鮮사람으로 아직 朝鮮 3景을 모르는 내가 幸인지 不幸인지 「마드리스」가 된 因故로 世界 3大景의 隨一이라고 부르는 「리오」港의 水郷을 親見하게 되었다……

旅行者가 疲困한 몸을 「호텔베드」의서 쉬일 때의 門을 nok크하고 드리오에는 絶문 美人이 있다. 意味있게 눈으로 表情을 하며 안으로 門鎖를 채워 버린다. 熱帶地方이 되어 그리치만 발달된 肉體線을 確實이 비치워 주는 衣服을 입고 또한 노-츠로스는 물론이다.

「나리 적적하여 잠 못 일우지오, 동모 좀 하여 드릴나고요」 그말이 낫날 때에는 벌서 彈力있는 몸이 客이 무릅 우에 와있고 纖纖玉手는 어는 듯 목을 얼매고 情熱의 타는 입술은 저저오른다. 萬里異域에서 鄉愁가 가슴을 막아 잠 못 일우는 때의 美人의 마음대로에 慰安을 받으면 不快할 者업다.

瞬時間의 꿈을 깨고 나면 南國美人은 간 곳 업고 旅費는 1分도 업시 빼앗겨 버린다……

이곳의서는 紳士의 態度는 通用되지 않는다. 勝負는 비스틀(권총)을 만져 放射하는 者가 이기는 方法이다. 그러서 「리오」라는 데다.

性病 蔓延率도 實로 甚淒하다.

山中腹 쯤에 「鳥의 巢」라고 하는 貧民窟이다.

貧民窟이라 함보다 病疾者의 部落이라 함이 適當할 줄 안다. 住民이 貧困者임은 물론이나 大半이 梅毒과 狼瘡으로 行人들의 눈으로 보지 못할 形便에 되어 있다.

全身은 붓고 이 곳 저 곳에 濃汁는 흐르고 살은 露出되어서 파리무리의 襲撃을 맞는다.

파리 만은 곳은 이 곳 便所다. 便所라고 하여도 家屋周圍를 파고 어느 누구를 分別안코 大小便을 보는 共同便所나 다름업다. 設備不完全하야 露天이 되어서 더구나 南國의 陽 빛에 汚物이 醞酵하야 不潔은 말할 것 업고 惡臭는 行人에 코를 막는다.<sup>34)</sup>

이 글은 남미를 여행한 체험을 기술하는데, 직접 겪은 것임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전달한다. 그곳은 여행자가 호텔에서 쉬 때 들어오는 발달된 육체미를 가진 젊은 여인, 그 여인의 농염한 유혹, 그리고 순식간에 지갑을 도둑맞은 경험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은 선정적이고 매혹적인 경험과 그 선정성, 매혹, 호기심 한편으로 도둑질, 파리가 끓는 변소 같은 거리, 매독 등의 전염병이 들끓고, 아무 때나 권총을 쏘고 싸움이 오고가는 빈민굴이라는 공포가 동시에 공존하는 곳, ‘리오’라는 곳이다. 이런 에스노그래피적 타문화 전유로서의 이색문화체험 기행문에 나타난 두 가지 향, 즉 이윤배반적 재현물(‘믿을 수 없음’과 ‘사실임’)이 독자에게 선정적 호기심으로 소비되고 탐닉된다고 할 때, 이 글은 이런 소비적 탐닉이 가능하게 되는 일정한

34) 홍운봉, 「각국의 엽기행, 남미 리오항」, 「삼천리」(1935.1).

조건, 낯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의 일단을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 근대가 갖게 된 서구적 의미에서의 일종의 이국취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에서 이국취향이 출현한다는 것은 타자와 차이의 관련해 새로운 시각이 도입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한다. 닝·왕이 지적하듯, 주체가 타자를 보는 방식으로서의 이국취향은 근대적 자신감에 근거했을 때 나타난다고 한다.

서구적 근대성의 도래와 더불어 서구사회는 내부적 평정을 경험했고 이것과 연관하여 자신들을 문명화되지 않고 야만적인 문화에 비해 우월하다고 간주, 국민적 자신감이 지속적으로 강해지면서 이국취향이라는 용어는 서구의 심성과 감정을 일컫게 되었다. 근대성이 진전됨과 동시에 계몽주의 시대에 이국취향이 진행되고 19세기 유럽에서도 눈에 띄게 성장한다.<sup>35)</sup>

닝·왕은 위와 같이 서구에서 이국취향이 나타난 역사적 맥락에 계몽주의가 이룬 문화적 자신감과 그것을 보장하는 국민국가라는 기반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서구에서 국민국가와 계몽 이성에 기반한 ‘문화적 자신감’을 가졌을 때, 호기심으로서의 이국적 취향이 나타난다면, 식민지 근대 조선의 지식인들이 보여준 낯선 문화에 대한 이국취향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이 부류의 문화체험형, 에스노그래피적 기행문의 경우에 볼 때, 주체가 기반하는 문화적 자신감에 근거한 이국취향은, 주체가 귀속공동체로부터의 정체성의 거리화가 이루어졌을 때 증가한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서구라는 거대한 지역을 그 서구의 문명적 의미, 그것을 전유하는 조선인으로서가 아니라, 특정 체험의 ‘대상만’을 언급함으로써, ‘대상 전체의 의미망’(개인이 네이션의 일부라는 제유적 사고), 대상지역(표층)과 그것이 가진 과거 역사(심층)이야기의 동일성이라는 은유적 사고라는 지(知)의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는 주체가, ‘개체’로서의 자기정당성을 ‘우리’라는 귀속공동체보다는, 다분히 ‘근대’라는 보편성에 준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네이션 대표가 아닌 추상적 근대인으로서의 개인일 때, 그와 대비되는 브라질 원주민, 유럽의 집시들이 특이하고 낯설고 이질적이면서도, 아름답고 소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35) 닝·왕·이진행·최석호 역, 『관광과 근대성 - 사회학적 분석』(일신사, 2004), 217쪽.

즉 나라의 대표를 벗어던짐으로써 나라가 갖는 비문명과 개인의 문명을 분리할 수 있게 되고, 개인으로서의 근대적 보편의 축을 근거로, 타자로서의 이질적 문화에 대해 이국취향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흥운봉의 글에서 씌어진 남미 표상은, 한편으로는 ‘신사도가 통하지 않는 곳’ 또는 ‘호텔’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표상주체가 서있는 ‘신사도’, ‘위생’의 의미망이 동시에 설정되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신사도와 위생이라는 근대의 보편적 기준을 소유한 문명화된 개인으로서의 표상주체는, 서구인의 눈에 그때까지 야만인으로 존재했던 ‘집단으로서의 자기-귀속공동체와의 동일체로서의 조선인’을 망각하는 것과 동시에 성립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광범위하게 본다면 서구적 문명이 중심화된 진화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진화론적 사고가 근대계몽기의 경우와 다른 것은 계몽기의 진화론적 담론 수용의 주체가 공적 자아, 국가였다면, 여기서는 그 진화론적 시각을 전유하는 내적 단위가 개인이라는 점이다. 즉 무엇을 수용했는가와는 별도로, 그것을 수용하는 우리 내부의 분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IV. 문화체험 기행문의 에피스테메

기행문은 대상지역에 대한 표상의 생산이자 동시에 그것을 표상하는 ‘자기’를 구성하는 글쓰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 서구지역 기행문을 살펴볼 때 있어서 개인이 물리적, 공간적 대상으로서의 서구를 어떻게 관념적 표상으로서의 서구로 구성해내는가, 이런 공간 전유 과정에서 시간이 어떻게 관여되는가? 이렇게 서구의 주조과정에 작동하는 자기(주체)의 형성은 어떠한 것인가가 중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서론에서 언급한 식민지 시대 네 가지 서구 기행문 중 문화체험형 기행문의 양상을 통해 이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 양상에 근거해 문화체험기행문의 에피스테메를 시간, 공간, 글쓰기와 주체구성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 1. 서구 공간의 전유 방식

사카이 나오키는 『번역과 주체』에서 일본사상사 속에서 간문화적 상황에서, 타문화를 번역하는 과정의 사상사적 의미를 탐구한 바 있다. 그는 외국어와 자국어가 번역을 축으로 설정되는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국어, 외국어가 일종의 체계이자 이데올로기로서 만들어지는 상황을 언어번역 차원을 넘어 문화번역의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번역은 직접적인 책의 번역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해외체험’ 자체가 타문화 번역의 상황에 내몰린 주체의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해외여행은 ‘주체(개인)’이 타문화 번역 상황에서 ‘의미의 등가성의 한축이 되도록 강제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로형 기행문의 경우, 표층의 점(경험대상)과 심층의 의미(국가건립, 문화예술, 문명의 위계)가 인과적 질서와 선적인 연속성의 질서 속에 놓여있고, 이런 상상력이 바로 네이션을 성립시키는 기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문화체험 기행문들은 대상을 단편화된 ‘점’으로 경험하고, 그 단편화된 대상을 의미로 연결하지 않는다. 이런 기행문에서는 요컨대, ‘정조대’, 서구식 화장실, 지하철이라는 체험대상을 세계 문화 예술의 중심지라는 파리의 문화적 위상 속에서 비교, 의미화하기 보다, ‘이상한 것들의 집합체’ 속에서 속에 의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구가 더 이상 ‘문명’의 이상적 모델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개별화되고 분할된 대상들로 전유되는 표상의 결과다. 개별화되고 분할된 서구는 일상문화나, 이색적인 축제, 경악스러운 볼거리, 야만적 대상들이 존재하는 낯설고 이질적인 곳들로 표상된다.

그리고 이런 낯선 볼거리는, 네이션 주체의 추체험의 여로가 아닌, 듣도 보도 못하던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는 근대적 경험주체로서의 개인에 기반하는 것이다. 즉 직접 겪은 체험을 내세워, ‘믿을 수 없음’과 ‘경험적 사실임’이라는 두 개의 이율배반적 항을 논리적으로 신뢰가능하게 하는 개별화된 주체(개인)를 정립하는 것이다.

서구를 이렇게 이색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으로 전유하는 태도는 우리 근대 사유에서 사실상 처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서구인에게 서구는 특정 지역이나, 경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문명의 모델로서 이념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서구’는 ‘무징으로서의



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근대 비서구인들이 서구를 체험하고 그것을 글로 쓰는 표상의 과정에, 이 이데올로기로서의 서구가 전제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근대 계몽기의 만국지리의 이름으로 소개된 지식이나, 여로형 기행문에서 보여준 문명의 모델로서의 서구상과 달리, 문화체험형 기행문은, 식민지 근대에 질게 드리워있는 이념적 서구 전유 방식과 달리 개체로서의 대상전유의 태도를 보여준다.

## 2. 현재성의 시간감각과 미적인 대상전유

디페쉬 차크라바티는 「인도역사의 한 문제로서의 유럽」에서 19세기 유럽이 비서양 식민지에게 준 두 가지 개념적 선물로 ‘역사주의적 시간감각’과 ‘정치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들면서 이를 다시 사유할 것을 요청한다. 역사주의는 첫째,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총체로 - 적어도 어떤 종류의 잠재적 단일체로 설정하는 것, 둘째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발전이라는 개념과 바로 그 발전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이 흘러간다는 가정은 이 역사주의적 사고방식이고 이는 식민지에서 문명이라는 사고를 정당화시켜, 식민지 주민들에게는 ‘유럽에서 먼저,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라는 시간의 구조로 인식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서구의 발전론적, 단계론적 역사주의는 서구의 현재를 역사의 정점으로 설정하면서, 비서구를 ‘아직 아니다’라고 지시함으로써 서구와 비서구 식민지 간에 ‘동시대성의 부정’이라는 에피스테메를 주조했다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동시대성이 부정된 식민지의 시간을 ‘역사의 대기실’이라는 은유로 표현했다.<sup>36)</sup>

그런데, 위에서 살핀 문화체험형 기행문들은 이 시간 감각에서 역사주의적 사유와는 다른 시간의 내러티브를 보여준다. 대상 및 체험을 ‘묘사하는 글쓰기 방식속에서 ‘시간을 ‘현재성’ 중심으로 설정하는 태도가 관류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구를 지금 현재, 내가 겪은 것으로 전유하는 과정에서 서구는 옹거나, 훌륭하거나,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특정한 어떤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를 ‘매력적인 특정한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즉 대상에 대한

36) 디페쉬 차크라바티 「인도역사의 한 문제로서의 유럽」, 『혼적』1호(문화과학사, 2001), 90쪽.

미적인 사유라는 점에서, 앞의 Ⅲ장 2의 축제 등의 서구 일상문화 체험에서 보이는 부러움의 시선, 3의 에스노그래피적 타자 체험에 나타나는 경멸의 시선은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멸과 부러움이라는 상반되는 시선이지만, 대상으로서의 서구를, 개별화하고 탈 역사화 하면서 향유의 방식으로 소비적으로 전유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또한 과거 역사라는 시간의 무게에서 자유로운 주체설정은 서술의 내러티브에서 현재를 중심화하는 ‘동시대성’의 심상지리로 나타난다. 이런 동시대성의 심상지리는 다음과 같이 자기문화를 바라보는 감각의 변화와 연동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고국 계신 여러분과 또한 선생께서는 파리절이라함을 이리케만 상상하십소서.  
개성(開城)에 사월초파일이 되면 파일노리라 하여 남녀노소가 송악산에 올라 화전(花煎)지지며 놀지 안습니까.

또 오월단오날 되면 평양에서 단오노리를 굉장하게 하지 안습니까.

또 팔월보름날 함흥감영(咸興監營)에서 추석노리를 만세교란간이 꺼지게 잘 놀지안 습니까.

巴里祭라함이 이 개성의 파일절과 평양의 단오노리와 함흥의 추석노리를 한데몽친 것사외다.<sup>37)</sup>

이 글은 파리제 경험을 서술하는 김련금의 글이다. 이글에서는 처음 보는 낯선 체험을 고국에서의 비슷한 축제인 초파일날 화전놀이, 추석놀이, 단오놀이 등과 비교하면서 전달하고 있다. 많은 매개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비교’와 ‘유추’, ‘공통성’의 틀로 서구체험과 자기문화를 해석하는 사고는 ‘동시대성’의 시간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특정체험의 전달, 그 체험에 매력적으로 탐닉했던 자기경험 위주의 서술에서 서구와 비서구의 역사적 시간의 서열이 후면화되고, ‘동시대성’, 즉 서구와 자기의 등가의 감각이 나타나는 것이다.

### 3. 대중 매체와 지(知)의 분할

위에서 언급한 서구를 전유하는 동시대성의 시간감각은, 실증적 역사 단계 여부라기보다는, 이 부류 기행문의 ‘표상’ 차원에 나타나는 시간

37) 김련금, 앞의 글.

감각이다. 그리고 이 동시대성의 시간 감각은 앞서 언급했듯 대상에 대한 향유적, 탐닉적 태도라는 점에서 자본주의하 소비자 주체를 상징해 볼 수 있다. 이 소비자 주체는 광고, 해외기사, 유행의 확산 등, 표상의 생산을 통해 증식하는 가상, 환영 차원에서의 ‘소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대 실증적 차원에서의 생활수준 등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문화체험형 기행문과 앞서 2장에서 언급한 지식의 사회화와 관련된 미디어적 관계 속에서 살필 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여로형 기행문과 고학체험형 기행문이 앞 시기의 『개벽』과 계몽주의적 잡지인 수양동회의 기관지 『동광』과 신문 연재로 게재되었던 것과 달리, 여기서 언급하는 문화체험형 기행문 및 에스노그래피적 기행문은 주로 『별건곤』과 『삼천리』에서 선호한 유형이다. 이를 ‘대중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취미잡지가 갖는 상업적 통속성’에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류의 기행문들은 『개벽』이나 『동광』 신문과 같이 단독 저자의 장기연재물로 실리기보다, 그 잡지의 호별 특집, 기획 속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즉 ‘비밀’, ‘엽기’, ‘잊지 못할 일’, ‘통쾌한 일’, ‘애로’, ‘그로’, ‘각국의 청년 생활’, ‘각국의 사춘기’, ‘저들의 학창생활’ 등의 기획 하에, 기사, 강담, 경험담, 외국의 사례, 국내의 사례가 배치되는 기획이 일반적이다. 이때 기행문은 이런 상위의 기획 속에서 ‘기명의 저자가 직접 목격한 실제 사례’로서 생생함이 소비되도록 정향되어있다. 이는 기행문의 저자 즉 여행경험의 주체가 지식을 구성하고 그 지식의 온전한 생산자로서 독자(잠재적 독자)를 설득·계몽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식구성의 메카니즘이 미디어에 의해 부과된 후, 개인에게 할당된 몫만을 요구하는 것이다.<sup>38)</sup> 즉 경험을 기술하는 글쓰기 형식 및 그 형식이 전제하는 독자와의 주요 소통 형식, 그 소통의 최종적 목적에 있어서, 서술주체가 주인이 아니라, 기획과 배치, 분할과 할당의 형식으로 미디어(대중매체)의 시스템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중매체란 이윤을 위해 재미있게 기사를 쓴다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38) 분할, 몫의 할당, 그리고 정치적인 것 혹은 정치성의 후면화와 자본주의적 근대사회의 심성에 대해서는 랑시에르, 오윤성 역, 『감성의 분할 - 미학과 정치』(도서출판b, 2008.2); 랑시에르, 양창렬 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도서출판 길, 2008)에서 시사받았음.

보다 근본적으로, 그 “매체가 갖는 형식의 층위에서 대중매체의 이데올로기는 대중매체가 설정하는 분리, 곧 사회의 분할, 개체의 분할과 관련된다”는 것이다.<sup>39)</sup>

이런 분할의 기획 속에서, 기사들은 경험, 번역, 이야기, 묘사 등이 뒤섞인 호기심 어린 이야기들도 함께 실리고, 때로는 회고담을 풀어놓는 유명인사들의 고답적 수필도 함께 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중국고대의 이야기들이 실리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기행문은 기명의 저자가 언제 어느 때 그곳에 갔음을 명기하며 체험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배치되어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본 홍운봉의 「남미, 리오항」 기행문은 (『삼천리』, 1935.7)의 같은 기획 하에 「세계 비밀경, 남미적인 번쪽의 탐험기」라는 익명의 기자의 글과 함께 배치되어있다. 그러나 이 후자의 글의 내용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야만인 부락의 동물탐험이라든가, 원주민의 결혼풍습, 토속악기, 원시림 속의 독사나 동물 등 출처가 불분명한 지식들의 조합이다. 이것들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이야기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의 소비 속에서 기명의 기행문 저자는 ‘내가 진짜로 보았는데’의 생생함을 담당하도록 몫을 분할 받은 것이다. 또한 이런 기획 속에서 독지는 빠르고, 감각적인 대상 소비에, 호기심에 다양하게 몰입하고 쉽게 다른 대상으로 넘어간다. 실제로 허헌, 박인덕, 이정섭 등을 소개하면서 해외여행에 소비되는 여비를 계산해서 제시한 기사가 『삼천리』에 실리기도 했다.<sup>40)</sup>

따라서 이런 대중매체가 행하는 분할의 기획 속에서의 지식(글쓰기)은 독자의 ‘읽’(인식주체 형성)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향유되고 소비’되도록 정향된다. 그 대상 지식들은 대부분 경악스러운 이질적 문화, 믿을 수없이 신기한 풍속, 짜릿하고 흥분되는 축제의 경험들이다. 그 이야기 대상들이 내부에서는 인과적 필연성의 질서가 없지만, 기획 특집 속에 무차별적으로 ‘함께 통합되고’, ‘함께 전시’됨으로써, 상품판매로서의 박람회와 같은 ‘잡종적 전체성’의 가상을 제시하는 것이다.<sup>41)</sup>

39) 장 보드리야르, 이규현 역, 「대중매체를 위한 진혼곡」,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문학과지성, 1992), 191쪽.

40) 「삼천리 기밀실」, 『삼천리』 7권 1호(1935.1), 15-16쪽.

41) 이는 『별건곤』, 『삼천리』의 특집 구성이 갖는 일반적 특징이다. 이는 기행문 테마 이외에 근대 대중미디어의 관점에서 따로 논해야 할 성격의 것이다. 다만, 이들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지식 편집 체계로서의 ‘분할’과 ‘전체성의 가상’이 ‘상품판매로서의 전람회’와 맺는 구조적 유사성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19세기 이후 자본주의 근대 사회와 함께 성장한 대중적 저널리즘의 속성이기도 하다. 저널리즘의 역사 속에서 뉴스와 정보, 계몽 이외에 선정적 잡보의 범람이 갖는 성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sup>42)</sup>

#### 4. 문화체험 기행문의 주체 - 소비자 개인

이상의 논의를 통해 문화체험형 기행문에서 서구를 전유하는 방식 - 시간의 동시대성, 공간의 개인적, 분할적 전유 - 과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의 성격 및 지식을 주조하는 미디어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실상 이렇게 형성되는 해외에 대한 지식은 해외 체험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인식하고 실천을 예비하는 주체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저자와 독자는, 계몽의 주체도 계몽의 대상으로 설정된 독자도 아닌 것이다. 대상을 제공하는 편과 소비하는 편, 대상을 체험, 기사, 지식, 국내기사, 해외기사 등으로 균등 분할하는 근대 지식체계, 에피스테메로서의 지식 - 권력이 먼저인 것이다. 이때 문화체험형 해외 기행문을 통해 생산된 표상은 그 생생함, 묘사, 눈에 보이는 관찰과 기록, 사진을 통해 재현대상으로 시각적 대상으로 소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미디어가 분할하는 지식의 분업 생산에, 특정의 몫만을 할당받고, 독자는 그 생생한 표상에 탐닉하고 향유하는 자인 것이다. 이때의 주체는 인식론적 주체나 실천적 주체라기보다는 대상을 미적으로 향유하고, 감각적으로 소비하고 탐닉한다는 점에서 근대 자본주의적 소비자 - 개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V. 나오며

본고는 식민지 시대의 서구여행기를, 실제의 여행 경험과 그것에 대해 글쓰기(표상)화되어 만들어진 '서구', 그 표상과정 속에 동시적으로 축조되는 자기상(identity, self-image)의 관점에서 보았다. 서론에서 언급

42) 바네사 슈와르츠, 노명우·박성일 역, 『구경꾼의 탄생 - 세기말 파리, 시각문화의 폭발』 (마티, 2006) 참조.

한 여로형, 고학체험형, 문화체험형, 정치적 행사 파견형의 네 종류의 기행문 중 문화체험형 기행문을 대상으로, 내이션이라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주체의 성립, 역사로부터 분리된 현재적 시간성의 확보, 이와 연관된 미적인 대상전유와 묘사적 글쓰기 방식의 관계, 미디어라는 기획 주체에 의해 통합된 글쓰기, 그리고 소비하고 향유하는 근대 자본주의적 소비자 주체의 대두라는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 부류 기행문은 양적으로는 소수에 속하고 정치 행사 파견기와 여로형 기행문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곧 식민지 시기 해외 전유의 주류적 방식이 내이션 주체와 긴밀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 이후 이 네 부류 기행문이 나타난다는 것은, 외부를 전유하는 방식이 단일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우리 내부에서의 ‘분화’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3.1 운동 이후 부상한 입신출세 담론은 고학체험기가 잡지에 실리는 것과 연관이 볼 수 있고, 『별건곤』 『삼천리』 등 대중잡지에서 시사, 정치적 이슈보다는 도시적 일상과 대중문화가 조명되는 것과 문화체험기 및 에스노그래피적 기행문이 집중적으로 실리는 점이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행기는 개인적으로 여행한 기록이라는 의미, 그래서 그 글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해명하는 대상에 그치지 않는다. 여행체험을 쓴다는 ‘실증의 가상’을 헤치고 본다면, 해외체험에서 무엇을 선택해 어떻게 배열해 어디에 실리느냐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기행문은 당대 문화적 정치적 지평 속에서 역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소통된 글쓰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별건곤』 『삼천리』 『동광』 『개벽』의 기행문 자료 및 해외 기사 자료.

가라타니 고진, 『네이션과 미학』, 그린b, 2009.

김수진, 「취미기사와 신여성 - 서사양식과 주체위치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75집, 2007.

김윤규, 「개화기 친미 지식인이 의식과 문학」, 『문학과 언어학』, 2006.5.

김종엽, 『연대와 열광 - 에밀 뒤르켐의 현대성 비판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8.

김진영, 「조선왕조 사절단의 1896년 러시아 여행과 옥시덴탈리즘」, 『동방학』, 2005.9.

노에 게이치, 김영주 역, 『이야기의 철학』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0.

닝 왕, 이진형·최석호 역, 『관광과 근대성 - 사회학적 분석』, 일신사, 2004.

바네사 슈와르츠, 노명우·박성일 역, 『구경꾼의 탄생 - 세기말 파리, 시각문화의 폭발』 마티, 2006.

박찬승, 「식민지 시기 독일 유학과 유학생의 민족운동」, 『아시아의 근대화와 대학의 역할』,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백성현·이한우, 『파란 눈에 비친 하얀 조선』, 새날, 2006.

사카이 나오키, 후지이 다케시 역, 『번역과 주체』, 이산, 2005.

이범운, 「1920년대 해외유학에 관한 연구 - 동아일보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고려대석사 논문, 2002.

이지은, 『왜곡된 한국, 외로운 한국 - 300년 동안 유럽이 본 한국』, 책세상, 2006.

임경석·차혜영,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사람들, 2008.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도서출판 길, 2008.

\_\_\_\_\_, 오윤성 역, 『감성의 분할 - 미학과 정치』, 도서출판 b, 2008.

장 보드리야르,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 문학과지성, 1992.

장규식, 「개화 지식인의 서구체험과 근대관」, 『동방학』, 2005.

차혜영, 「지역간 문명의 위계와 시각적 대상의 창안」, 『현대문학의 연구』24, 2004.11.

\_\_\_\_\_, 「식민지 시대 여로형 서구 기행문 연구 - '박물관·실험실' 은유와 네이션 주체의 구성방식」,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009.12.

\_\_\_\_\_, 「식민지 시대 미국유학생의 장소표상과 주체구성 - 고학 체험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12.

채석진, 「제국의 감각 - 에로, 그로, 년센스」, 『페미니즘 연구』5집, 2005.

황호덕 『한국근대형성기 문장배치와 국문담론』,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2.

## 국 문 요약

본고는 식민지 시대의 서구여행기를, 실제의 여행 경험과 그것에 대해 글쓰기(표상)화되어 만들어진 '서구', 그 표상과정 속에 동시에 축조되는 자기상(identity, self-image)의 관점에서 보았다.

식민지 시대 서구 지역 기행문은 1)1920년대 초반 유학생이나 여행객의 실제 '여로'를 중심으로 한 장편 연재 기행문 2)1920년대 중반 이후 신문 및 잡지 연재되는 미국중심의 '고학체험' 기행문, 3)1920년대 후반 이후 특정 지역에서의 개인의 '문화체험'을 특화하는 기행문 4)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미국, 러시아 등의 정치적 행사에 파견된 필자들의 장편 연재 기행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는 이중 세 번째의 '1920년대 후반 이후 특정 지역에서의 개인의 '문화체험'을 특화하는 기행문'을 중심으로 논했다.

분석의 과정에서 기행문이라는 글쓰기를 '개인의 실증적 체험을 쓰는 글쓰기'라는 조건이 만들어내는 '특정한 표상 구조의 방식'의 관점에서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특정한 표상구조의 방식은 1)공간(장소)와 주체의 관계 형식 2)기행문 글쓰기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시간인식 3)이를 통해 드러나는 글쓰기 형식과 미디어의 관계,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4)기행문의 서술 주체가 한국근대의 주체상과 어떻게 조응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부류 기행문에는 서구를 개인적인 특이 체험 중심으로 기술하거나, 서구의 이질적인 지역에 대한 에스노그래피적 접근, 혹은 서구의 일상문화에서의 축제 체험 등을 서술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귀속공동체와의 분리를 통해 개인을 형성하고, 그 개인이 소비자-개인의 에피스테메를 갖는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1)서구를 개인의 특정 체험의 대상을 선택적으로 전유하는 서구의 분할, 2)근대 역사주의적 시간감각과는 다른, 동시대성의 시간 내러티브, 3)묘사적 글쓰기와 대중 미디어의 지식생산 시스템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투고일** 2009. 10. 14.

**수정일** 2009. 12. 2.

**게재 확정일** 2009. 12. 9.

**주제어(keyword)** 문화체험(cultural experiences), 에스노그래피(ethnography), 소비자-개인(consumer-individual), 공간분할(space division), 동시성(contemporaneity), 묘사(description), 현재성(nowness), 시간의 내러티브(time narrative), 미적인 대상전유(aesthetic representation)